

## 열왕기의 아하스와 역대기의 아하스

황선우\*

### 들어가는 말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하여 기록한 두 역사서 본문은 열왕기하 16장 1-20절과 역대하 28장 1-27절이다. 두 본문을 비교하여 읽으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예컨대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하스를 대적하였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고 기록한 반면 열왕기하 16장 5절과 평행되는 역대하 28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기록한다. 또한 열왕기하 16장 9절에는 앗수르 왕이 아하스의 청을 듣고 다메섹을 점령하였다고 기록되었는데 평행본문인 역대하 28장 20절에는 앗수르 왕이 아하스의 청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하스를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아하스에 대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은 크고 작은 차이점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 열왕기와 역대기의 큰 신학적 흐름 속에서 열왕기의 아하스와 역대기의 아하스를 해석하고 아하스에 대한 두 역사서의 기록이 모순적 관계에 있지 않고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구약학

## 1. 열왕기하 16장 1-20절과 역대하 28장 1-27절 대조

아래는 필자가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본문 대조에 관한 주요 연구서를 참조하여 열왕기와 역대기의 아하스 본문을 대조한 것이다.<sup>1)</sup> 이 대조를 통해 포로기 후기의 역대기 저자가 열왕기의 아하스 내러티브 일부를 수정, 생략하고 역대기 저자의 고유한 자료(Sondergut)를 첨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sup>

- 
- 1) Abba Bendavid, *Parallels in the Bible* (Jerusalem: Carta, 1972), 136-137; James D. Newsome, Jr., *A Synoptic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Grand Rapids: Baker, 1986), 210-215; John C. Endres, William R. Millar, John Barclay Burns,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 in Samuel, Kings, and Related Biblical Text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8), 291-295; 황선우, 『사무엘-열왕기 평행본문 대조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283-287. 이 논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글번역은 개역개정을 따른 것이다.
  - 2) A. G. Auld는 역대기 저자가 열왕기를 주요자료로 사용했다는 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반대하여 사무엘-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제3의 자료를 사용하여 각각 필요에 맞게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A. G. Auld, *Kings without Privilege: David and Moses in the Story of the Bible's Kings* (Edinburgh: T&T Clark, 1944); "What was the Main Source of the Books of Chronicles?,"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in Text and Texture*, eds., M. P. Graham and Steven L. McKenzie, JSOT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91-99; "Synoptic David: The View from Chronicles," *Raising Up a Faithful Exegete*, eds., K. L. Noll and Brooks Schramm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117-128. 그러나 이 주장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견해는 아니다. Auld의 견해를 반박하고 일반적 견해를 옹호하는 논증을 위해 다음을 참조하라. Gary N. Knoppers, *1 Chronicles 1-9*, AB (New York: Doubleday, 2003), 66-68; Steven L. McKenzie, "The Chronicler as Redactor,"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in Text and Texture*, 80-87.

열왕기하 16:1-20

역대하 28:1-27

- 1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십칠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 2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 3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 4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 5 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 1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 2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비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 3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 4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 5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처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처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 6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십이만 명을 죽였으며
- 7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미아세야와 궁내대신 아스리감과 총리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 8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이십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 9 그 곳에 여호와와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벳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 10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 11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 12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이시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아와 하들래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  
을 막으며

1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  
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  
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  
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  
느니라 하며

14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  
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  
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  
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  
아로 돌아갔더라

16 그 때에(אִי־הָיָה עֲבָרָה)

6 당시에(אִי־הָיָה עֲבָרָה)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  
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  
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7 아하스가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  
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  
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 아하스가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앓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  
더니

아하스 왕이 앓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  
와 주기를 구하였으니

17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18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  
들을 침노하여 벵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  
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담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19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되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20 앓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를 공격하였더라

21 아하스가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9 앓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  
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  
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앓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22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 10 아하스 왕이 앓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이아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 11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편지라
- 12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 13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23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이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 14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 15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쭙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 16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 17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 18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앓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24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25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 |   |   |
|---|---|
| <p>19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p> <p>20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p> | <p>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p> <p>26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p> <p>27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p> |
|---|---|

## 1. 열왕기의 아하스와 역대기의 아하스 비교 분석

역대기의 아하스 내러티브인 역대하 28장 1-27절의 틀(frame)은 역대기 저자가 기본 자료로 사용한 열왕기하 16장 1-20절의 틀에 기초하지만 그 틀 안의 내용은 열왕기의 아하스 내러티브와 상당히 다르다.<sup>3)</sup> 존스톤(William Johnstone)은 역대기 저자의 열왕기하 16장 사용의 큰 그림을 잘 보여준다.<sup>4)</sup>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	비고
2-4절	1-4절	
5-6절	5-15절	왕하 5-6절을 대폭 수정
7-18절	16, 20-25절	왕하 7-18절의 미미한 반영
평행구절 없음	17-19절	
19-20절	26-27절	

필자는 두 아하스 내러티브의 효과적인 대조를 위해 두 본문을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두 본문의 차이점과 강조점을 드러내고 두 본문을 어떻게 조화롭게 읽을 수 있는가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3) Raymond B. Dillard, *2 Chronicles*, WBC (Nashville: Thomas Nelson, 1987), 220.

4) William Johnstone, *1 & 2 Chronicles II*, JSOT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75.

- 1.1. 아하스에 대한 개론적 평가(왕하 16:1-4//대하 28:1-4)
- 1.2. 아하스와 주변국들간의 전쟁(왕하 16:5-9//대하 28:5-22)
- 1.3. 아하스의 성전훼손과 배교(왕하 16:10-18//대하 28:23-25)
- 1.4. 아하스의 죽음(왕하 16:19-20//대하 28:26-27)

### 1.1. 아하스에 대한 개론적 평가(왕하 16:1-4//대하 28:1-4)

존스톤은 위의 표에서 열왕기하 16장 1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열왕기하 16장 1절은 역대하 28장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으로 유다 왕 아하스가 왕이 될 때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 제17년이었음을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열왕기 저자는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 북이스라엘 왕의 연도를 그 배경으로 언급하는 것과 달리 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역대기 저자는 북이스라엘 왕의 연도를 소개하지 않는데 역대기 저자가 아하스 왕을 소개하는 데도 예외는 아니었다.<sup>5)</sup>

역대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지 않고 곧바로 아하스가 20세에 왕위에 올라 16년을 통치했다고 말한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 의하면 아하스가 왕이 된 때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으로 이때는 주전 735년이다.<sup>6)</sup> 아하스가 주전 735년에 왕위에 올라 16년 간 통치했다면 719년까지 통치한 것인데 아하스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취임한 해는 주전 715년이기 때문에 약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sup>7)</sup> 그렇다면 아마도

5) 허성균이 언급하듯이 역대기에서 유다 왕 아비아를 소개할 때만 이스라엘 왕의 연대(여로보암 18년)가 배경으로 소개되고 그 외에는 이스라엘 왕의 연대가 제공되지 않는다. 허성균,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에 대한 기록들 비교,” 『신학과목회』 32 (2009), 14.

6) Edwin R. Thiele,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Grand Rapids: Kregel, 1983), 120; Marvin A. Sweeney, *I & II King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7), 381.

7) 앗수르 연대기에 따라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침략한 해가 701년이고 그 해가 히스기야 14년이기 때문에(왕하 18:13)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해는 주전 715년이다. Thiele,

허바드(R. L. Hubbard)가 제안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에 아하스가 왕이 된 것은 아하스의 아버지 왕이었던 요담과 공동통치를 시작한 해 일 것이고 이 공동통치는 주전 735년부터 731년까지 4년 동안 이어졌고 아하스가 16년 통치했다는 것은 단독통치 기간으로서 주전 731년부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는 주전 715년까지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sup>8)</sup> 이 계산에 따라 아하스가 아버지와 공동통치를 시작했던 주전 735년에 20세였다고 본다면 아하스가 태어난 해는 주전 755년이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주전 715년에 히스기야의 나이가 25세였음을 고려하면(왕하 18:2) 히스기야가 태어난 때는 주전 740년이므로 아하스는 그의 나이의 15세에 히스기야를 낳은 셈이다.<sup>9)</sup>

열왕기하 16장 2-4절과 역대하 28장 1-4절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죄를 지었음을 말한다.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었다(왕하 16:2-3//대하 28:1-2).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이 행했던 우상숭배를 따랐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하스가 유다 왕 중의 최악의 왕 중 하나임을 암시하는 것이다.<sup>10)</sup>

---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120.

8) R. L. Hubbard, *First and Second Kings*, EBC (Chicago: Moody, 1991), 201; Paul R. House, *1, 2 Kings*, NAC (Nashville: B&H, 1995), 335-336.

9)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주전 735년)에 왕위에 올라 16년을 다스리고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넘겼는데 히스기야의 등극이 주전 715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안으로 본문의 수정을 가정하는 견해도 있다. 코간과 타드모르(Mordechai Cogan and Hayim Tadmor)는 칠십인역 역대하 28장 1절에 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25세로 기록된 것을 받아들인다면 요담과의 공동통치를 설정하지 않고도 아하스의 연대문제가 해결됨을 언급한다. Mordechai Cogan and Hayim Tadmor, *II Kings*, AY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186. BHS 본문비평장치(apparatus)에 따르면 칠십인역 이외에도 하나의 히브리어 사본과 고대 라틴어 사본, 시리아어 사본, 아랍어 사본에 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한 나이가 25세로 기록되어 있다.

10) Johnstone, *1 & 2 Chronicles II*, 176; H. G. 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2), 344.

역대하 28장 2절 하반절에서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하 16장 3절에 없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를 삽입함으로써 아하스의 우상숭배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또한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는 아하스가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עבר) 했다고 기록된 반면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8장 3절에서 아하스가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고(בער) 기록하였다. 여기서 아하스가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그가 인신제사로 모압 신 몰렉을 섬기는 이교적 행위에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1)</sup> 놀스(R. North)는 불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고통을 주는 것으로 불로 태워 죽이는 것과 다르다고 보았다.<sup>12)</sup> 그러나 에스겔 16장 21절에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과 자녀를 죽이는 것을 연결시킨 것을 볼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곧 자녀를 태워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보다 불에 태우는 것이 인신제사의 최악상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매켄지(Steven L. McKenzie)는 열왕기에서 불로 지나가게 했다는 표현(עבר)이 역대기에서 불태웠다는 표현(בער)으로 바뀐 것을 ע and כ의 자음치환(metathesis) 현상으로 이해했지만 역대기 저자는 단순히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עבר)는 표현을 보다 강력한 표현인 “불태웠다”(בער)로 바꿈으로써 아하스의 인신제사의 죄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 
- 11) Iain W. Provan, *1 & 2 Kings*, UBC (Grand Rapids: Baker, 1995), 244.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제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 C. Heider, *The Cult of Molech: A Reassessment*, LHBO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5); J. Day, *Molech: A God of Human Sacrifice in the Old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12) R. North, “The Chronicler: 1-2 Chronicles, Ezra, Nehemiah,” *New Jerome Biblical Commentary*, eds., Raymond E. Brown, Joseph A. Fitzmyer, Roland Murphy (New York: Bloomsbury, 1990), 380.
- 13) 김경열,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447.
- 14) Steven L. McKenzie, *1-2 Chronicles*, AOTC (Nashville: Abingdon, 2004), 335.

## 1.2. 아하스와 주변국들간의 전쟁(왕하 16:5-9//대하 28:5-22)

아하스 내러티브의 서두(왕하 16:1-4//대하 28:1-4)에서 아하스의 가증한 우상숭배를 언급한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는 각각 열왕기하 16장 5절과 역대하 28장 5절에서 아하스와 유다의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아람의 싸움을 기록한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이사야 7장 1절과 호응하는 반면 역대하 28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상숭배자 아하스를 아람 왕에 손에 넘기셔서 많은 무리의 유다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이 아하스를 쳐서 유다를 크게 살육하였다고 기록한다.<sup>15)</sup> 맥켄지는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의 주요 신학의 하나인 즉각적 보응(immediate retribution) 사상에 호응하기 위하여 열왕기하 16장 5절을 수정하여 역대하 28장 5절에 적었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역대기의 즉각적 보응신학에 관하여 클라인(Ralph W. Klein)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비록 성경 전반에 신실함에 따르는 보상과 형통, 신실하지 못함에 따르는 형벌이 예상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보상과 형벌이 더 즉각적이고 개인적이어서 보통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일어난다.<sup>17)</sup>

달라드도 역대기 저자가 열왕기하 16장 5절의 말씀을 수정하여 역대하 28장 5절에 기록하였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였는데 북이스라엘 사람이 이방민족과 연합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역대하 28장 5절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분리시켰다고 분석하였다.<sup>18)</sup>

15) 이사야 7장 1절: “웃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16) McKenzie, *1-2 Chronicles*, 335-336.

17) Ralph W. Klein, *1 Chronic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6), 46.

그러나 역대하 28장 5절을 열왕기하 16장 5절의 문학적 수정이라고 보기보다 열왕기하 16장 5절과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올라와 아하스와 싸웠지만 아하스를 이기지 못한 싸움이었고 역대하 28장 5절이 서술하는 것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각각 단독으로 아하스와 싸워 승리한 전쟁에 대한 기록이다.<sup>19)</sup> 또한 엄연히 결과가 다른 두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간주하고 그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록했다고 보는 것엔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메첸지와 딜라드의 의견을 수용하려면 역대하 28장 5절의 역사성을 희생시켜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역대하 28장 5절을 열왕기하 16장 5절과 다른 사건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역대하 28장 5절은 5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연결된 부분은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본문이라는 점이다. 즉 역대하 28장 5-15절 전체를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지 않은 본문으로 볼 때 역대하 28장 5절을 열왕기하 16장 5절과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하는 당위성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는 왜 열왕기하 16장 5절 대신에 16장 5절과 다른 사건인 역대하 28장 5절을 삽입했을까? 그 이유는 역대기에서 강조되는 즉각적 보응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즉각적 보응을 강조하는 역대기 저자에게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며,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아하스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는 것 보다는 패하는 구조가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패한 사건으로 열왕기하 16장 5절을 대체했을 것이다.

앞서 클라인의 인용에서도 확인했듯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대기의 즉각적 보응사상은 상과 벌이 후세대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세대에게

18) Dillard, *2 Chronicles*, 221.

19) Sara Japhet, *I & II Chronicles*, OTL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3), 899.

주어진다는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역대기의 즉각적 보응사상은 문학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역대하 28장 5절에서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을 기록한 것은 역대하 28장 1-4절에서 아하스의 죄가 소개된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열왕기하 16장 1-4절에서 아하스의 죄가 언급되었지만 바로 다음 5절에서 아하스가 그 죄의 결과와 상관없이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선명히 대비된다.

역대하 28장 5절 후반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유다 살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다음 절인 6절부터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 하루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6절) 왕의 아들을 포함한 왕의 관료들도 죽임을 당하고(7절) 20만 명의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포로로 끌려간다. 하지만 선지자 오넢의 예언에 따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애를 발휘하여 동쪽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이는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회구하는 역대기 저자의 “모든 이스라엘”(all Israel) 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sup>20)</sup>

역대기 저자가 포함시킨 북이스라엘의 승리와 남유다를 향한 관용의 기사(대하 28:6-15) 이후에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은 모두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아하스의 부탁기사를 수록한다. 열왕기하 28장 6절 이하에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남쪽의 엘랏을 점령하고 유다사람을 쫓아내자 아하스는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바친다. 이에 디글랏빌레셀 3세가 올라와 다메섹을 점령하고 다메섹의 아람 왕 르신을 죽인다.<sup>21)</sup>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20) 역대기 저자가 포로기 이후에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회복되어야 할 동족임을 강조하는 “모든 이스라엘”(all Israel) 사상에 관하여는 H. G. M. Williamson,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를 참조하라.

21) 고대 아람어 비문인 파나무와 비문(The Panamuwa Inscription)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디글랏빌레셀 3세가 다메섹을 공격한 것을 기록하였다. 파나무와 비문에서는 사말(SAM'AL)왕국의 왕인 파나무와가 왕국내부의 반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앗수르의 디글랏

우상을 숭배하던 아하스가 그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또 다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즉각적 보응 사상을 강조하는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아하스의 바람대로 아람 왕 르신이 앗수르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기사를 생략하고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를 의지했지만 도리어 앗수르 왕에게 공격을 당하는 에피소드인 역대하 28장 16-21절을 삽입하였다. 이 에피소드는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에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앗수르의 유다 공격이었고 아하스가 앗수르 왕에게 준 성전과 왕궁의 재물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었다. 역대기의 이 사건 또한 즉각적 보응사상이 문학적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역대기 저자가 신학적인 역사가(theological historian)이지만 역사성을 훼손하면서 그의 신학을 설교하지 않고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에 맞는 역사적 사건을 선택하여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만약에 역대기 저자가 그의 신학적 주제만 강조하고 역사성을 무시했다면 역대기 본문에서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아람 왕을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단순히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아하스를 공격한 것으로 본문을 수정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신학적 메시지와 역사성을 동시에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열왕기의 기사 대신에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과 아하스의 부탁 기사를 삽입한 것이다.

---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파나무와 비문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K. L. Younger Jr., "Panamuwa and Bar-Rakib: Two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18 (1986), 91-103; Sunwoo Hwang, "A Study of the Panamuwa Inscription," 『개혁논총』 22 (2012), 9-31.

## 1.3. 아하스의 성전훼손과 배교(왕하 16:10-18//대하 28:23-25)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하 16장 10-18절에서 아하스가 다메섹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예루살렘 성전에 적용시킨 것을 기록한 반면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8장 23-25절에서 아하스가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으며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 성읍에 산당을 세워 여러 신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음을 기록하였다.<sup>22)</sup>

하우스는 열왕기상 16장 10절에서 아하스가 보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이 앗수르 제단의 구조와 양식이라고 말하지만 콘켈(August H. Konkel)과 이종근이 지적하듯이 이 제단이 앗수르의 제단이라는 근거는 없으며 본문을 살펴 볼 때 그 제단은 앗수르의 제단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제단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sup>23)</sup>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아하스가 우리야에게 제단의 도면을 보낸 것은 앗수르의 강제적인 압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하스가 “제단을 보고” 좋아했기 때문일 것이다.<sup>24)</sup> 그렇다면 그 제단이 다메섹에서 본 제단이기 때문에 앗수르의 제단이 아니라 아람의 제단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메섹이 아하스에게 청을 받은 앗수르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것(왕하 16:9)은 다메섹이 섬기던 신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아하스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메섹 제단이 좋아보여서 그것을 수입하였을 것이다.

또 하나의 이슈는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의 구조와 양식만 수입하여 예루살렘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변경시킨 후 여전히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다메섹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예루살렘 제단에 적용하고

22) 아하스 이전에는 유다 왕 아사사야 예돔에서 세일 사람들의 신을 가져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제사한 기록(대하 25:14-16)이 있다.

23) House, *1, 2 Kings*, 337; August H. Konkel, *1 & 2 King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6), 565. 이종근,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다글랏 빌레셀 3세의 패권,” 『신학논단』 61 (2010), 103.

24) Provan, *1 & 2 Kings*, 246.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지에 관한 것이다. 윌리엄슨과 딜라드는 아하스가 다메섹의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예루살렘 성전에 적용하였지만 여전히 제사는 여호와께 드린 것으로 본다.<sup>25)</sup> 그러나 열왕기하 16장 10-18절에는 다메섹 제단의 구조와 양식으로 변경된 제단에서의 제사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열왕기하 16장 10-18절의 평행본문에 속하는 역대하 28장 23절에서 아하스가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16장 10-18절에서 아하스가 드린 제사도 다메섹 신들에게 드린 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열왕기하 16장 10-18절의 평행본문인 역대하 28장 23-25절은 비록 세 절에 불과하지만 아하스의 배교를 더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고발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열왕기하 16장 10-18절에서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의 성전 구조와 양식을 수입하여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구조를 변경하였음만 기록할 뿐 이방신에게 제사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역대하 28장 23절에서는 아하스가 아람을 도운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고 결국 그것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여기서 아하스가 다메섹 신들이 아람을 도왔다고 생각한 것은 앞서 역대하 28장 5절에 기록된 아람의 승리를 언급한 것(“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역대하 28장 24-25절에서도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의 우상숭배를 강력히 고발한다.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우상을 숭배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다고 명시한다. 결국 열왕기하 16장 10-18절의 평행본문인 역대하 28장 23-25절은 세 절에 불과하지만 아하스의 배교가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23절)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다고(25절) 명시함으로써 역대기의 즉각적 보응신학을 피력한다.

25)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348; Dillard, *2 Chronicles*, 223.

## 1.4. 아하스의 죽음(왕하 16:19-20//대하 28:26-27)

아하스의 죽음을 기록한 열왕기하 16장 19-20절과 역대하 28장 26-27절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열왕기하 16장 20절에서는 아하스가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기록한 반면 역대하 28장 27절에서는 아하스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한 점이다. 열왕기하 16장 20절의 다윗 성이 역대하 28장 27절의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두 본문은 상충관계에 있지 않다.<sup>26)</sup> 다만 역대하 28장 27절에서 열왕기하 16장 20절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음을 기록한 것이다. 아하스가 열왕기하 16장의 결론보다 역대하 28장에서 더 부끄러운 종국을 맞이한 것도 역대기의 즉각적 보응신학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 나가는 말

열왕기와 역대기의 아하스 내러티브인 열왕기하 16장 1-20절과 역대하 28장 1-27절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하 16장 1-20절을 기초자료로 삼아 열왕기 아하스 내러티브의 네 개의 틀인 아하스에 대한 개론적 평가, 아하스와 주변국들과의 전쟁, 아하스의 성전훼손과 배교, 아하스의 죽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신학을 위해 상당히 많은 내용에 변화를 주었다.

열왕기의 아하스와 역대기의 아하스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열쇠는 역대기 저자가 아하스 내러티브에서 강조한 즉각적 보응(immediate retribution) 사상이다. 이 즉각적 보응은 한 세대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한 문학적

26) 역대기의 예루살렘성은 열왕기의 다윗성과 다르지 않다. 허성균,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에 대한 기록들 비교,” 27.

단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하스의 죄를 소개한 서두 이후에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하 16장 5절과 달리 역대하 28장 5절에서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였음을 기록하였다.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의 아하스의 승리와 역대하 28장 5절에서의 아하스의 패배가 충돌을 일으킨다고 볼 필요는 없다. 역대기 저자는 즉각적인 보응 사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하스의 죄를 언급한 이후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하스를 이기지 못한 역사적 사건(왕하 16:5) 대신 아람과 이스라엘이 각각 아하스를 물리쳤던 역사적 사건을 삽입하였다. 그러므로 아하스가 서두에 언급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음을 기록한 것이다. 열왕기 저자는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를 의지하여 아람에게 승리했음을 기록한 반면 역대기 저자는 에돔과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디글랏빌레셀 3세를 의지했지만 오히려 도움을 받기는커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공격받았음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아하스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이것도 역대기 저자가 아하스와 주변국들과의 전쟁이라는 열왕기 저자의 틀을 유지한 채 내용에 변화를 가져옴으로 역대기의 즉각적 보응신학을 강조한 경우이다.

므낫세와 아울러 유다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역대기의 즉각적 보응신학의 촘촘한 틈을 빠져 나갈 수 없었다. 악한 왕 아하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위해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의 악한 아하스를 더 악한 아하스로 묘사하였다. 열왕기 아하스 내러티브 서두에서 아하스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한 악한 왕으로 소개되는데 반해 역대기 저자는 이에 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아하스가 비알의 우상을 만들고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열왕기에서 아하스는 다메섹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예루살렘 성전에 적용하여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는 죄를 지은 자로 기록되는데 반해 역대기 저자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말로 아하스의 죄를 지적하였다. 아하스가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부수고 성전 문을

닫고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제사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죄이다. 즉 역대기에서는 아하스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다시 말하면, 지은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응받았음을 기록한 것이다.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 내러티브의 결론에서도 아하스가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추가함으로 그가 강조하고자 한 즉각적 보응신학을 피력하였다.

**<주제어>**

아하스, 즉각적 보응, 역대기, 열왕기, 평행본문

**<Key Words>**

Ahaz, Immediate Retribution, Chronicles, Kings, Parallel Passage

\* 접수일 2017년 3월 7일, 수정일 2017년 3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7년 3월 27일

## 참고문헌

- 김경열,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이종근,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디글랏 빌레셀 3세의 패권,” 『신학논단』 61 (2010), 83-113.
- 허성군,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에 대한 기록들 비교,” 『신학과 목회』 32 (2009), 5-35.
- 황선우, 『사무엘·열왕기 평행본문 대조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_\_\_\_\_, “A Study of the Panamuwa Inscription,” 『개혁논총』 22 (2012), 9-31.
- Auld, A. G., *Kings without Privilege: David and Moses in the Story of the Bible's Kings*, Edinburgh: T&T Clark, 1944.
- \_\_\_\_\_, “What was the Main Source of the Books of Chronicles?,”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in Text and Texture*, eds., M. P. Graham and Steven L. McKenzie, JSOT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91-99.
- \_\_\_\_\_, “Synoptic David: The View from Chronicles,” *Raising Up a Faithful Exegete*, eds., K. L. Noll and Brooks Schramm,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117-128.
- Bendavid, Abba, *Parallels in the Bible*, Jerusalem: Carta, 1972.
- Cogan, Mordechai and Tadmor, Hayim, *II Kings*, AY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Day, J., *Molech: A God of Human Sacrifice in the Old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Dillard, Raymond B., *2 Chronicles*, WBC, Nashville: Thomas Nelson, 1987.
- Endres, John C., Millar, William R., Burns, John Barclay,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 in Samuel, Kings, and Related Biblical Text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8.

- Heider, G. C., *The Cult of Molek: A Reassessment*, LHBO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5.
- House, Paul R. *1, 2 Kings*, NAC, Nashville: B&H, 1995.
- Hubbard, R. L., *First and Second Kings*, EBC, Chicago: Moody, 1991.
- Japhet, Sara, *1 & 2 Chronicles*, OTL,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3.
- Johnstone, William. *1 & 2 Chronicles II*, JSOT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Klein, Ralph W., *1 Chronic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6.
- Knoppers, Gary N., *1 Chronicles 1-9*, AB, New York: Doubleday, 2003.
- Konkel, August H., *1 & 2 King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6.
- McKenzie, Steven L., "The Chronicler as Redactor,"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in Text and Texture*, eds., M. P. Graham and Steven L. McKenzie, JSOT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80-87.
- \_\_\_\_\_, *1-2 Chronicles*, AOTC, Nashville: Abingdon, 2004.
- Newsome, James D. Jr., *A Synoptic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Grand Rapids: Baker, 1986.
- North, R., "The Chronicler: 1-2 Chronicles, Ezra, Nehemiah," *New Jerome Biblical Commentary*, eds., Raymond E. Brown, Joseph A. Fitzmyer, Roland Murphy, New York: Bloomsbury, 1990, 362-398.
- Provan, Iain W., *1 & 2 Kings*, UBC, Grand Rapids: Baker, 1995.
- Sweeney, Marvin A., *1 & 2 King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7.
- Thiele, Edwin R.,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Grand Rapids: Kregel, 1983.
- Williamson, H. G. M., *Israel in the Books of Chronic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_\_\_\_\_, *1 and 2 Chronicles*,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2.

Younger, K. L. Jr., “Panamuwa and Bar-Rakib: Two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18 (1986), 91-103.

<초록>

## 열왕기의 아하스와 역대기의 아하스

황선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하여 기록한 두 역사서 본문은 열왕기하 16장 1-20절과 역대하 28장 1-27절이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하 16장 1-20절을 기초자료로 삼아 열왕기 아하스 내러티브의 네 개의 틀인 아하스에 대한 개론적 평가, 아하스와 주변국들과의 전쟁, 아하스의 성전훼손과 배교, 아하스의 죽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신학을 위해 상당히 많은 내용에 변화를 주었다.

열왕기의 아하스와 역대기의 아하스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열쇠는 역대기 사가가 아하스 내러티브에서 강조한 즉각적 보응(immediate retribution) 사상이다. 역대기 저자는 즉각적인 보응 사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하스의 죄를 소개한 서두에 이어 역대하 28장 5절에서 열왕기하 16장 5절의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하스를 이기지 못한 역사적 사건 대신 아람과 이스라엘이 각각 아하스를 물리쳤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아하스가 서두에 소개된 그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음을 기록하였다. 또한 열왕기 저자는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를 의지하여 아람에게 승리했음을 기록한 반면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가 에돔과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디글랏빌레셀 3세를 의지했지만 오히려 도움을 받기는커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공격받았음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아하스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악한 왕 아하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위해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의

악한 아하스를 더 악한 아하스로 묘사하였다. 열왕기 아하스 내러티브 서두에서 아하스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한 악한 왕으로 소개되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에 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아하스가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열왕기에서 아하스는 다메섹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예루살렘 성전에 적용하여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는 죄를 지은 자로 기록되는데 역대기 저자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말로 아하스의 죄를 지적하였다.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 내러티브의 결론에서도 아하스가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추가함으로 그가 강조하고자 한 즉각적 보응신학을 피력하였다.

<Abstract>

## Ahaz in Kings and Ahaz in Chronicles

Prof. Sunwoo Hwang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2 Kings 16 and 2 Chronicles 28 are the two Ahaz narratives in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Taking 1 Kings 16 as the base source for 2 Chronicles 28, the Chronicler maintained the structure of four divisions of 1 Kings 16: the introductory assessment on Ahaz, The wars between Ahaz and the neighboring countries, Ahaz's defilement of the temple and apostasy, and the death of Ahaz. However, the Chronicler deviates considerably from the content of 1 Kings 16.

The key for understanding the discrepancies of the Kings' Ahaz and the Chronicles' Ahaz is the Chronicler's emphasis on theme of immediate retribution. Having introduced Ahaz's sin in the beginning of the Ahaz narrative, the Chronicler replaced Aram and Israel's failure to conquer Ahaz in 2 Kings 16:5 with Aram and Israel's defeat of Ahaz in 2 Chronicles 28:5 in order to emphasize immediate retribution. Likewise, upon the request of Ahaz, the king of Assyria, Tiglath-pileser III, went up to Damascus and captured Rezin in 2 Kings 16:9, but Tiglath-pileser III oppressed Ahaz and did not support him though Ahaz sent to Tiglath-pileser III to help him in 2 Chronicles 28:20. Ahaz, who relied on man rather than God, was punished in Chronicles.

To underscore the deserved punishment of Ahaz, the

Chronicler described Ahaz more wickedly than the description in Kings. While Ahaz was introduced as a king who did not do what was right and followed the ways of the kings of Israel in Kings' introductory assessment, the Chronicler described the sins of Ahaz more specifically by saying that he made idols for the Baals worship and burned sacrifices in the Valley of Ben Hinnom. Whereas Ahaz was portrayed as a king who defiled Jerusalem temple by applying the structure and form of the Damascus alter, the Chronicler pointed Ahaz's sin more directly that Ahaz offered sacrifices to the gods of Damascus which resulted in the downfall of Israel. Furthermore, the Chronicler expressed immediate retribution by adding that Ahaz was not placed in the tombs of the kings of Israel at the end of the narrative.

